

남의 땅 먼 먼 곳을 기러기가 울고 가고
가을바람 건 듯 일어 나그네 속 맑아진다
시(詩)를 쓰며 의(義)를 외친 님의 자취 아득한데
이끼 덮인 동주(東柱)의 비 통분을 못 이겼다

응 급 실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차 경 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었다 하니 우리가 꽤 오래 살게 된 것 같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생명이 오래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축복받을 일이다. 우리가 귀중하게 맺은 아름다운 인연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어려운 일도 많이 따른다. 요즈음에는 오늘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998834'는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요양원과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승을 하직한다. 부부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녀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어 독거노인의 가정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기에는 응급실, 병실 입원, 중환자실 등을 거치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된다. 이 과정이 노인들에게는 특히 힘든 것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가 보면 환자가 너무 넘쳐서 정신이 없다. 모자라는 의료진이 너무 바쁘게 뛰어 다니니 환자의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수가 없다.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도 침대가 있는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소파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소파에서 밤을 새워 침대 나기를 기다리고, 응급실에서만 며칠을 지내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응급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응급실에 갈 수 없을까? 필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단순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응급실과 입원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인 시설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 더 늘릴 수 없을까? 아마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기 있는 대형 병원 몇 곳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대형

병원에 가 보면 전국에서 환자들이 집중하여 온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은 더 고생할 것이다. 질병은 귀중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더 좋다고 생각하는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응급실과 입원실의 서비스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간단히 생각해서 의료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자고 나면 호화로운 고층 빌딩이 몇 개씩 서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실정에서 의료문제의 해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러나 의료시설의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 하면 인기 병원으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기 있는 병원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균형있게 의료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빌딩을 짓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문제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는 십여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한 병원에 간 일이 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어떤 사람이 설문지가 든 봉투를 하나 주었다. 펴서 보니 거기에는 “의사가 병명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가?”, “무슨 약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가?”, “다음에 오는 약속은 잘 받았는가?”, “의사는 친절했는가?” ...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 봉투는 병원장 앞으로 바로 가도록 주소가 미리 쓰여져 있었다.

우리의 환자들이 이런 설문지에 답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2만 달러 소득시대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4:6의 신비한 비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구 인 환

세상을 잘 살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너와 나,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선비연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의식으로 공동사회 속에 이익사회의 경쟁 속에 자기를 성취시키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에는 정로(正路)를 벗어난 비이성적이고 보기 흉한 일이 계속 벌어져 혼